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투철한 신념과 의지, 배짱의 승리

리 광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세상 그 어느 명장들도 지닐수 없었던 투철한 신념과 의지, 배짱을 지니시고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오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런 신념과 배짱, 의지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을뿐만아니라 온갖 난관과 시련을 헤치시며 새 조국건설과 조국해방전쟁, 사회주의 건설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신념과 의지의 력사, 배짱의 력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김정일선집》 제21권 중보판 328페이지)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우선 전쟁의 첫 시기부터 승리에 대한 굳은 확신을 지니시고 전쟁의 모든 시련과 난관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영웅적 투쟁으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투철한 신념과 의지에 의하여 이룩된 위대한 승리였다.

제국주의와의 대결은 첨예한 힘의 대결인 동시에 신념과 의지의 대결이다.

1950년 6월 25일 미제가 조선전쟁을 일으켰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갓 벗어난 조선의 운명을 두고 우려를 금치 못하였다.

그것은 조선전쟁이 정규무력으로 발전된지 2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조선인민군을 일방으로 하고 백수십년의 침략력사를 통하여 《불패》의 신화를 가진 미제침략군과 15개 추종국가군대 그리고 남조선피뢰군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을 타방으로 한 1 : 세계와도 같은 치렬한 대결이었기때문이

였다.

당시 미국의 경제적잠재력과 군사력은 제2차대전이전보다 공업생산력이 2배이상으로 장성하고 금보유량에서 영국, 프랑스, 서도이쉴란드, 이탈리아, 일본 등 5개 나라의것을 합친것보다 11.5배를 소유함으로써 세계최대의 채권국가로 되였다. 미제는 제2차대전을 계기로 군수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조선전쟁초기 벌써 400여개의 원자탄을 가지고있었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지 5년,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된지는 불과 2년밖에 안되였다.

하기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더우기 전쟁초기부터 주도권을 쥐고 반공격을 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다.

지어 미제가 전쟁을 도발한 소식을 듣고 내각비상회의에 참가한 내각성원들조차 긴장감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날 진행된 내각비상회의에서 긴장되어있는 장내를 둘러보시며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알기를 우습게 안다고, 승냥이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과 같이 조선사람을 몰라보고 덤비는 놈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결정적인 반공격으로 무력침범자들을 소탕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우리 인민은 결코 어제날의 노예가 아니며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자들과도 용감히 싸워 반드시 이기고 민족의 존엄을 떨치고야말것이라는 필승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였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전기간 언제나 진두에 서시여 우리 군대와 인민을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하게 이끌어 나가실 수 있었다.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에서는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앞장에 서야 하며 필요하다면 불속에라도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이 민족의 운명을 걸머지신 위대한 수령님의 투철한 신념이었고 강의한 의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9(1950)년 7월 어느날 풍차를 타시고 전선사령부가 자리잡고있는 서울로 가시다가 림진강부근에 이르렀을 때였다. 적기의 폭격으로 다리가 끊어져 수행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다리가 복구된 다음 떠나실것을 말씀 올리자 수령님께서 림진강다리가 끊어졌으면 근방에 있는 철교로라도 건너가자고, 전선에서는 이 시각에도 전투원들이 피를 흘리며 적들과 싸우고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겠는가고 하시면서 서슴없이 철교에 들어서시었다.

전선사령부에 도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리해안의 예지로 전쟁 제1계단의 당면작전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명안을 세세히 가르쳐주시고 싸우는 인민군 전사들과 인민들을 만나시여 친어버이사랑으로 그들의 생활을 일일이 보살펴주시며 새로운 위훈으로 고무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후 또다시 최전선인 수안보에까지 나가시여 몸소 전선작전을 진두지휘하시었다.

신념과 의지로 헤쳐온 력사의 나날들이 있어 적들이 《불퇴의 선》이라고 호언장담하던 금강계선에서의 강행도하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대전포위작전이 승리적으로 결속되었으며 락동강도하가 단행되어 한달 남짓한 사이에 적들을 대구, 부산의 좁은 지역에 몰아넣고 공화국남반부전지역의 90% 이상을 해방하는 기적이 창조될수 있게 되었다.

주체39(1950)년 9월에 이르러 전선형편

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조성되었다. 미제침략자들은 우리의 전선과 후방을 차단하고 락동강계선에 진출한 인민군주력부대들을 일거에 포위소멸하며 빠른 시일내에 공화국북반부의 전지역을 강점하려고 수많은 무력을 동원하여 인천상륙작전과 락동강계선에서의 대대적인 반공격을 감행하였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진행되자 일부 비겁분자들은 압록강을 넘어가자고 주장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시각에 조국땅에 묻히는 한이 있더라도 또다시 압록강을 건널수 없고 억천만번 죽더라도 침략자들과 이 땅에서 기어이 싸워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신념이고 의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9(1950)년 10월 30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장령, 군관회의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조국땅에서 원쑤와 싸워야 한다, 오늘 우리 앞에는 미제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판가리싸움을 벌려 조국강토에 기여든 미제 무력침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느냐 하는 두갈래의 길이 놓여있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온 우리 인민이 어찌 또다시 외래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망국노의 생활을 할수 있겠는가,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다고, 우리는 어떤 희생도 무릅쓰고 원쑤와 싸워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타는 애국의 호소, 반공격명령을 받들고 전쟁의 승리를 위한 결사전에 떨쳐나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일거에 38°선이남으로 몰아냈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준엄한 시기 최고사령부를 찾아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씩씩하게 부르며 행군해간 인민군전사

들과 **김일성** 장군님을 믿고 따라가야 살길이 열리고 전쟁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신념을 안고 장군님 계시는 곳으로 찾아온 인민들, 적구에서도 최고사령부의 불빛을 마음속에 그리며 험난한 적후투쟁을 벌린 전사들의 가슴속에 하나같이 맥박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여 우리 인민은 미제와의 준엄한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며 우리 공화국은 영원히 빛난다는 것이었다.

전쟁의 운명은 그 직접적담당자들의 정신력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 진리를 자각하지 못한 군대와 인민은 적과의 싸움에서 용감성과 전투력을 최대로 발양할수 없게 되며 결국 적들에게 패하기마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불타는 조국애와 민족애, 다시는 식민지노예로 살아가서는 안된다는 불굴의 정신을 가슴에 안고 우리 인민군용사들은 불타는 고지와 전호에서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원수들을 무찔렀다. 리수복, 강호영, 안영애, 조군실, 한계렬 등 영웅전사들과 수많은 유명무명의 인민군전사들은 조국의 아들딸, 민족의 아들딸답게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고귀한 청춘을 서슴없이 바쳐 싸웠다.

전화의 나날 후방인민들은 군수물자생산과 수송을 결사적으로 보장하였으며 전시알곡생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남강마을녀성들을 비롯한 전선지역 인민들은 목숨걸고 싸우는 고지로 탄약과 식량을 날랐고 적후에서는 인민유격대, 소년빨찌산들이 조직되어 도처에서 침략자들을 소멸하였다. 그리하여 조국해방전쟁은 전체 우리 인민이 떨쳐나선 전인민적애국성전으로 확고히 전환되었다.

이처럼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력사적승리는 제국주의침략을 기어이 물리치고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끝까지 지켜내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굴의 신념

과 강철의 의지가 안아온 빛나는 승리였으며 수령님의 그 불굴의 신념과 의지에 고무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강의한 정신력의 위대한 승리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또한 포악한 제국주의강적과의 준엄한 대결에서 언제나 맞받아나간 위대한 수령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이 안아온 빛나는 승리였다.

력사는 강철의 담력과 배짱을 지닌 령도자만이 포악한 제국주의강적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어떤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받아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과 든든한 배심을 지니시고 전승을 안아오신 제일담력가, 제일배짱가이시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치렬한 전쟁으로 공인된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수령님의 담력과 배짱이 만천하에 과시된 전쟁이었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진행되던 주체 39(1950)년 10월 중순 평안남도 북창군에 있는 옥천에 도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옥천기차굴에 최고사령부를 정하시고 전쟁 제2계단의 작전방침실현과 새로운 전략적구상을 무르익히시며 전쟁을 승리로 령도하시였다.

그때 전선형편은 시시각각으로 긴장해지고있었다. 동부에서는 미1군단의 원산상륙에 합세하기 위하여 피뢰1군단이 밀려들고있었으며 중부와 서부에서는 미8군과 피뢰2군단이 평양, 양덕방향으로 기여들고있었다.

10월 15일에는 벌써 적들이 아호비령과 양덕에 그리고 17일에는 미1군단아래 1기병사단, 영국 27려단이 사리원을 거쳐 평양으로 향하였고 미24사단, 피뢰1보병사단은 남포, 수안에서 평양방면으로 끌어들고있었다. 그리하여 18일부터는 치렬한 평양지역방어전투가 벌어지고있었는데 평양

에서 옥천까지는 적기제화부대의 진출이 불과 몇시간밖에 안되는 거리였다. 더우기 10월 20일 미제가 최고사령부를 노리고 옥천의 코앞인 숙천과 순천벌에 4 000여명의 항공륙전대를 투하한 사실을 놓고서도 정세가 얼마나 험악한 상태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문득 여기 어디 낚시질할만 한데가 있겠는데 거기에 나가보자고 하시는 것이었다.

너무도 뜻밖의 말씀에 어쩔바를 몰라하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적들이 밀려드니 겁이 나는가고 물으시고 나서 전쟁이란 진공도 하고 후퇴도 하는 법이라고 하시며 우리는 이 후퇴를 통해서 시간을 쟁취하고 힘을 축적하여 다시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에 넘치신 어조로 선언하시었다.

실로 천만대적이 달려들어도 끄떡 안하시는 백두령장의 담력과 배짱이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닌 혁명가만이 총탄이 비발치는 최전방에도 주저없이 나설 수 있다.

천하를 한손에 거머쥐고 쥐락펴락하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이 있었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강적도, 그 어떤 역경도 지어는 죽음까지도 맞받아나가시어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실 수 있었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체 40(1951)년 9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적 비행기들의 폭격을 무릅쓰시고 험한 령과 사나운 강물을 수없이 넘고 건느시어 최전선의 전사들을 찾아가시었다.

최전선의 직동령기슭에 이르러 승용차가 앞으로 더 나갈 수 없을 때 신변을 넘려하여 일군들이 앞을 막아서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고지에서 싸우는 전사들을 생각하면서 걸으면 힘들지도 위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시며 해발 1 100여m의 험

한 산을 넘으시어 1211고지와 한줄기로 잇닿은 최전연의 어느 한 고지에 오르시었다.

이때는 적들이 《최대의 포격》, 《최대의 폭격》을 떠벌이면서 1211고지에 하루에도 3만~4만발의 포탄과 폭탄을 퍼부었으며 수많은 땅크의 엄호밑에 고용병들을 내몰아 파도식으로 련속 공격해오고있던 시기였다. 얼마나 폭격과 포격이 그칠새 없고 싸움이 치열하였던지 다람쥐도 숨을 곳이 없어 인민군전사들의 품에 기여들었다.

이러한 1211고지, 폭음이 울부짖고 매캐한 화약냄새를 풍기는 검은 연기가 타래쳐오르는 속에 거연히 서시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선지휘관들에게 적의 주타격방향을 알려주시면서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작전전술적 방안들을 제시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최전연에 모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인민군장병들은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라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부르며 1211고지를 피로써 사수하였으며 적들의 《하기공세》를 여지없이 짓부셔버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하늘도 이기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은 미제가 것처럼 믿던 원자탄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었다.

미제는 조선전쟁을 도발하면서 수적, 기술적우세와 함께 원자탄을 제일 크게 믿고있었다. 그러면서 2~3기의 원자탄만 떨어구어도 북조선은 손을 들것이라고 떠벌이었고 중국에 50여기, 소련의 100여개 도시들에 200여기의 원자탄을 투하할 계획까지 꾸며놓았다고 한다.

하지만 미제는 조선전쟁기간 무려 5번이나 계획했던 원자탄공격을 실현하지 못하고 주저앉고말았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에 눌려졌기때문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전

기간 이런 담력과 배짱으로 미제의 대규모 무력침공에 즉시적인 반공격으로 대담하시고 어뢰정으로 바다의 섬이라고 하던 중순양함을 격침시키는 세계해전사에도 없는 기적도 창조하시였으며 미제가 최후의 힘을 모아 준비한 《신공세》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무비의 담력과 배짱이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공중우세》를 자랑하는 미제의 최신예전투기들을 저격무기로 쏘아잡고 《무쇠철갑》을 때려잡는 사냥군으로,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은 영웅적인민으로 될수 있었다.

오늘 우리 혁명의 자랑찬 년대기들마다에 새겨진 력사적변혁들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투철한 신념과 의지, 배짱이 그대로 구현되어있으며 이 고귀한 유산이 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끄떡없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있는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신념과 의지, 배짱을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오늘의 진군길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기어 이 일떠세워야 할것이다.